周本『華嚴經』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李丞宰*

요 약

이 글은 周本『華嚴經』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을 소개하면서 그 解讀方法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글에서는 첫째로 여러 가지 用語의 槪念을 정리할 것이다. 둘째로 이 자료에 나오는 각종 符號의 種類와 位置를 정리할 것이다. 셋째로 이 부호들을 어떻게 解讀하는지 그 方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넷째로 이 자료의 點圖를 再構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點圖와 晉本『華嚴經』卷第20의 點圖를 잠깐 비교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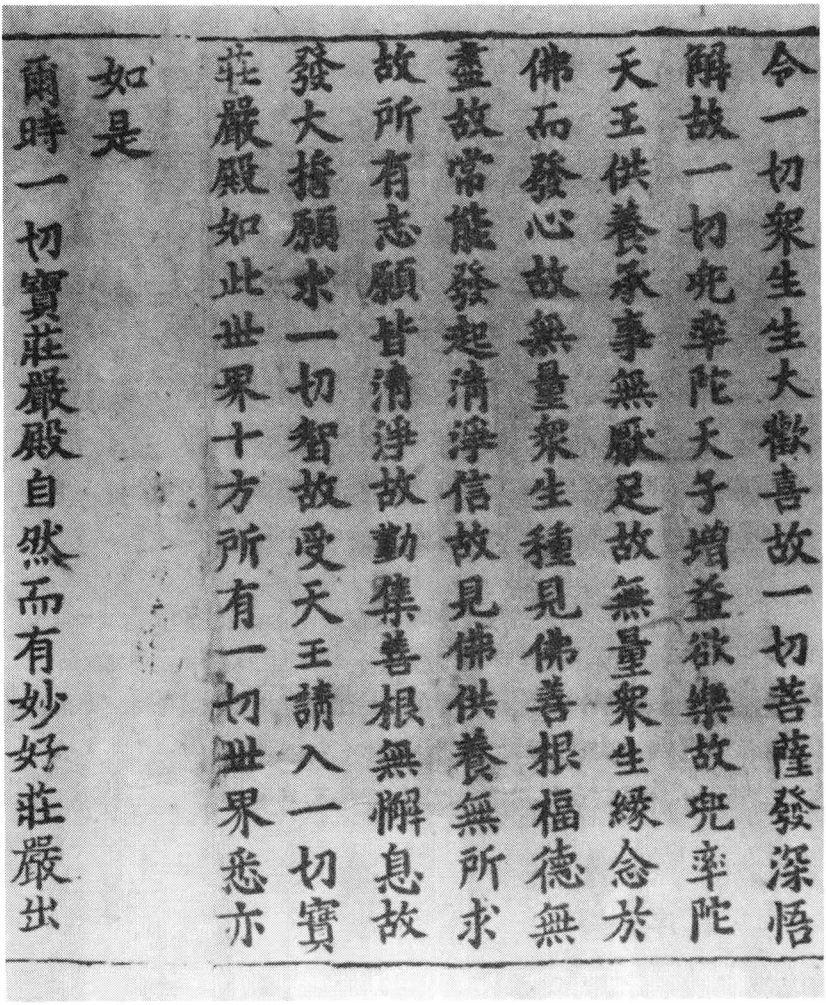
*핵심어: 부호, 구결, 각필, 화엄경, 대장경, 해독

1. 序論

이 글은 周本『華嚴經』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을 소개하면서 그 解讀 方法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발견된 周本『華嚴經』은 권제6, 권제22, 권제31, 권제34, 권제36, 권제57의 六點이다. 이들을 모두 硏究 對象으로 삼아 논의하

* 가톨릭대


令一切衆生生大歡喜故一切菩薩發深悟
解故一切兜率陀天子增益欲樂故兜率陀
天王供養承事無厭足故無量衆生緣念於
佛而發心故無量衆生種見佛善根福德無
盡故常能發起淸淨信故見佛供養無所求
故所有志願皆淸淨故勤集善根無懈息故
發大悕願求一切智故受天王請入一切寶
莊嚴殿如此世界十方所有一切世界悉亦
如是
爾時一切寶莊嚴殿自然而有妙好莊嚴出

周本『華嚴經』卷第二十二의 十九幅 끝과 二十幅 첫 부분

여야만 정확하고도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卷第22 한 卷으로 연구 대상을 좁힌 것은 시간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미리 양해를 구한다. 周本『華嚴經』권제22는『華嚴經』중에서는 가장 먼저 角筆 口訣이 발견된 자료로서 誠庵古書博物館[1] 所藏本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자료를 본격적인 연구의 첫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여러 가지 用語의 槪念을 정리할 것이다. 특히 '符號'와 '點吐'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 자료에 나오는 각종 符號의 種類와 位置를 정리할 것이다. 이는 해독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작업으로서 쉬운 듯하면서도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셋째로 이 부호들을 어떻게 解讀하는지 그 方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들어가면서 두서없이 기술하게 될 것이다. 넷째로 이 자료의 點圖를 再構할 것이다. 각 卷別로 點圖를 작성하는 일은 他卷과의 異同을 비교할 때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點圖와 晉本『華嚴經』卷第20의 點圖를 잠깐 비교하게 될 것이다.

周本『華嚴經』卷第22(앞으로는 이를 '이 資料' 혹은 '이 經'으로 略稱한다)가 어느 時期의 자료인가를 밝히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資料의 書誌 事項을 언급하여야 하지만 지면 관계상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 자료의 간행 연대를 南豊鉉(2000)은 11세기말로 추정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따르기로 한다. 周知하다시피 韓國에서의 符號口訣 硏究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다. 따라서 여러

1) 이 資料를 調査할 수 있게 도와준 誠庵 趙炳舜 館長님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 그리고 한국의 角筆 資料 發見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小林芳規, 西村浩子 先生님과 이 자료를 같이 조사한 南豊鉉, 尹幸舜 先生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드린다. 또한 이 자료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北海道大學의 石塚晴通 先生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가지로 未洽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많이 叱正해 주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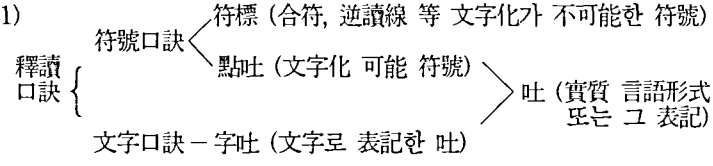
2. 用語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用語를 간단히 整理할 필요가 있다. 李丞宰(2000가)에서 이미 '文字-文字口訣'과 대비하여 '符號-符號口訣'이란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에 비하여 南豊鉉(2000)에서는 '點吐-點吐口訣'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符號'와 '點吐'를 모두 사용하되 그 의미를 구별하기로 한다.

圖表를 이용하여 이 글에서 사용할 用語의 槪念을 간단히 整理하면 (1)과 같다.

符號口訣은 釋讀口訣의 일종으로서 文字口訣과 對立되는 개념이다. 文字口訣은 기존의 墨書 釋讀口訣에서 보아 온 것으로서 문자의 일종인 口訣字로 表記한다. 이에 비하여 符號口訣은 문자가 아닌 부호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점에서 文字와 符號를 대립적 위치에 놓을 수 있다.

(1)



그런데 이 자료에 쓰인 부호를 잘 검토해 보면 言語形式을 표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자를 '點吐'라 하고, 후자를 '符標'라고 하여 구별하기로 한다.[2] 이처럼

2) 漢字의 네 귀퉁이에 '°'를 돌려 표기함으로써 聲調를 나타내는 符號가 있다.

'符標'를 설정한 것은 포괄적 개념의 '符號'와 구별할 때 편리하기 때문이다.

點吐는 기존의 文字로 치환할 수 있다. 예컨대 漢字의 한가운데에 온 單點 즉 '⊡'은 주제 보조사이므로 구결자 'ㄱ[ㄴ/은]'으로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漢字의 왼쪽 바깥에 온 單點 즉 '·□'은 대격조사의 표기에 쓰이는 口訣字 '乙[ㄹ/을]'로 바꿀 수 있다. 點吐는 모두 자신의 音價를 갖는다. 指定文字에 해당하는 것만 예외이다(각주 15 참고).

이에 비하여 符標의 범주에 드는 것들은 기존의 文字로 置換할 수 없다. 예컨대 合符는 문자화하여 문자로 바꿔 쓸 수가 없고, 역독선도 마찬가지이다. 합부나 역독선은 言語形式이 아니라 이를 보조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符標 範疇에 드는 것으로는 이밖에도 校正符號, 漢字의 四邊을 표시하는 '□', 여러 가지 機能의 補助線 등이 있다. 부표는 자신의 音價가 없다.

點吐는 文字吐와 구별할 때 효과적이다. 點吐는 幾何學的 要素인 점과 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文字吐 즉 기존의 口訣吐는 漢字의 省劃字나 草書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차이를 드러낼 때에는 點吐와 文字吐를 대립시키는 것이 좋다. 文字吐는 장경준(2001)이 제안한 것처럼 '字吐'로 줄여 부른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點吐와 字吐는 言語形式을 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둘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吐'로 지칭하면 된다. 이 점에서 符標는 吐와 對立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 글은 音價를 가지는 點吐와 音價가 없는 符標를 모두 서술 대상으로 한다. 이 개념 규정에 따라 '符號口訣'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이를 흔히 '圈聲' 또는 '圈點'으로 불러 왔다. 李基文(1971:63)은 이와는 달리 이 부호를 '圈標'라 지칭하였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符標'라고 명명하였다. 이 '符標'를 '符號 標示'의 약자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3. 符號의 種類와 位置

符號는 문자화가 가능한 點吐와 불가능한 합부, 역독선, 보조선 등의 符標로 나뉜다. 點吐는 다시 點, 線, 點과 線의 複合 등으로 나뉜다.

點에는 다시 單點, 雙點, 三點의 三種이 있다. 單點[·]은[3] 모든 부호의 기본으로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雙點에는 점의 방향에 따라 水平[‥], 垂直[:], 斜線[.·], 逆斜線[·.] 雙點의 四種이 있고 三點에는 [∵]과 [∴]의 二種이 있다. 雙點은 단일 點吐로 기능하나, 三點은 單點과 雙點이 다시 복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點은 모두 자신의 音價를 가진다.

線은 일단 短線과 長線으로 나뉜다.[4] 短線은 모두 直線인데, 短線에는 水平線[-], 垂直線[|], 斜線[/], 逆斜線[\]의 四種이 있다. 長線에는 直線인 '/'과 '\' 그리고 曲線인 'ㄴ'의 三種이 있고[5] 그 방향이 모두 上向이다. 따라서 이들을 아우를 때에는 上向長線이라고 부를 수 있다. 短線은 모두 音價를 가지는 點吐로 쓰인 데에 반하여 長線은 제 音價가 없다.

여기서 잠깐 上向長線의 용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6]

(2) a. 咸於佛所 起智慧境界[/]14心 <10,21-2> 기능: 未詳
b. 又於佛所 生最勝福田[/]09心 <11,3-4> 기능: 未詳
c. 已成熟者 令心調伏[/]09 觀甚深法 <18,13> 기능: 未詳
(3) a. 等觀衆生 心無所着[/]19住無礙住 <14,3> 기능: 逆讀?
b. 於我我所 俱無所着[/]19 <14,8> 기능: 逆讀?

---

3) 符號는 다음부터 [ ]로 감싸서 표기한다.
4) 短線은 길이가 2mm 내외인데 비하여 長線은 대개 4mm를 넘는다.
5) 曲線은 후술할 보조선으로 쓰인 때가 많다.
6) (2.a)의 [/]14는 앞에 온 '界'字에 달린 것으로 [/]은 부호의 종류를 '14'는 그 위치를 나타낸다. 부호의 위치에 대해서는 (4)를 참고하기 바란다.

c. 於一切 無所樂着[/]19 <14,18> 기능: 逆讀?
d. 業行所成[/]09 現於世間 <16,11> 기능: 逆讀?
e. 昔有如來無礙[\]22月 <20,16>[7] 기능: 逆讀?

(2)의 上向長線은 그 기능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일종의 校正符號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3)의 예들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逆讀'을 지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 같다. 『瑜伽師地論』 권제5와 권제8에서도 이러한 上向長線이 逆讀線으로 쓰인 바 있다. 校正符號와 逆讀線은 자신의 音價를 따로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長線은 符標의 範疇에 넣고 短線만 點吐의 範疇에 넣는다.

點과 線이 複合된 것으로는 '⸗' 모양의 것과 '!' 모양의 것 두 가지가 있다. 이들은 모두 點吐 部類에 든다.

'⸗'는 線의 중간 위치 바로 위에 점을 찍은 것이고, '!'는 線의 끝에 점을 찍은 것이다. 이것은 線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한 것인데 이보다는 點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 부호구결은 線보다는 點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點 중에서도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데, 이 點吐는 여러 부호구결 자료에서 항상 'ㄱ'으로 읽혀 讀音이 일치한다. 바로 이 '⊡'에서 點과 四邊을 複合하면 '⸗, ⸗, ⸗, ⸗'의 四種이 나오고, 이것의 變形인 '◇'에서 역시 '⸍, ⸌, ⸜, ⸝'의 四種이 나온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모두 八種이 되는데 이 八種의 點吐가 이 자료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이 八種을 하나로 아우를 때에는 이들이 눈썹 모양과 유사하므로 '눈썹形' 點吐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는 點 위에 수직선을 그은 것이다. 點을 기준으로 하여 線을 긋는 방향과 위치가 모두 8가지이므로 역시 八種의 點吐가 가능하다. 즉 '!, ¡, ·⸗, ⸗, ./, ⁄ ˙, ˎ. , ˙ ˎ '의 8가지인데 이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를 대표로 삼아 '느낌표形' 點吐로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7) 앞에 적은 20은 張次이고 뒤의 16은 行次이다. 이하 같다.

이 중에서 '-, ./, ㆍ.'의 3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아마도 우연한 빈 칸이 아닌가 하나 자료가 부족하여 아직 단정할 수 없다.

補助線은 境界線으로 쓰인 것과 機能이 未詳인 것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音價를 가지지 않으므로 符標의 범주에 든다. 기능 미상의 보조선이 음가를 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心<11,16>'字와 '身<15,19>'字 위에는 '⁀' 모양의 曲線이 나온다. 이것은 □(漢字의 四邊)의 上邊을 이렇게 그려 넣은 것인데, '心'字의 11번 위치와 '身'字의 07번 위치에 온 單點의 위치를 확실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그려 넣은 境界線인 것으로 판단된다. '第一<13,11>'의 '一'字에는 垂直 點吐가 두 개 그어져 있는데 이 點吐의 位置를 明示하기 위하여 '一'字 외곽에 '□' 모양의 境界線을 그었다. 이 두 예는 漢字의 四邊을 明示하기 위하여 補助的으로 그려 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智慧之本<15,2>'의 '本'字에는 'ㄴ' 모양의 境界線이 나온다. 이 '本'字에는 16번 위치에 [··]이 나오고 17번 위치에 [-]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 'ㄴ'이 그어져 있다. 이것은 이 'ㄴ'이 漢字의 바깥쪽과 안쪽을 구별하기 위한 경계선임을 뜻한다. '爲喩上妙色<19,8>'의 '喩'字 右上에도 境界線 'ㄱ'이 나온다. '喩'字의 04번 위치와 10번 위치에는 각각 水平雙點 [··]이 나오는데 이 'ㄱ'도 □(漢字 四邊)의 바깥쪽 위치에 두 雙點이 온 것임을 표시하기 위한 境界線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補助線은 그 기능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 즉 주 기능은 境界 標示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을 밝히기 어려운 補助線도 나온다. '百萬億無量音<5,20>'의 '億'字 오른쪽에는 'ㅣ'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인 모양의 長線이 있고 그 바깥쪽인 20번 위치에 水平短線 [-]이 온다. 따라서 이 長線은 短線 [-]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는 校正符號인 듯하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如是尊重<9,21>'의 '重'字 한가운데로 '⁀'과 같은 곡선이 크게 그려져 있으나 그 기능은 알 수가 없다. '非世言辭<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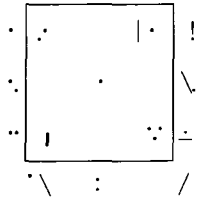
의 '非'字 가운데에는 '\'이 길게 그어져 있는데 역시 그 기능을 밝히기 어렵다. '普雨一切莊嚴具雲<20,4>'의 '莊'字의 19번 위치에서는 'ㄱ'이 아래쪽으로 길게 그어져 있다. 역시 未詳이다. '開敷鮮榮<4,18-9>'의 '敷'字 19위치에서 위로 치켜 올라간 'ㄴ'도 미상이다.

符號의 位置를 確定하는 일은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애매모호한 위치에 온 點吐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有意味 位置를 (4)의 25개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다.

(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5)



이것은 漢字의 상하와 좌우에 각각 5개의 位置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각 번호 위치에 單點이 올 수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25개의 單點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25개의 위치가 항상 辨別된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쓰이지 않은 위치도 있을 수 있고, 쓰였지만 주위의 위치와 辨別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點의 위치를 번호로 指稱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때가 많다. 예컨대 (5)의 [\]는 [\]02로, [·]는 [·]07로, [!]는 [!]10으로, [∵]는 [∵]19로, [/]는 [/]25로 지칭하면 符號의 種類와 位置를 아주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에 따르면 (5)의 左上의 單點을 [·]06으로, 한가운데 單點을 [·]13으로 표시하게 되므로 이 둘은 符號의 種類가 같되 位置가 서로 다름을 쉽게 나타낼 수 있다.

4. 解讀 方法

符號口訣의 解讀 方法을 논의하기 이전에 잠깐 解讀 節次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부호구결을 해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각 점토의 종류와 위치를 감안하여 點吐를 字吐로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13은 'ㄱ'으로 읽는 것임을 앞에서 잠깐 거론하였는데, 이처럼 각 點吐를 字吐로 바꾸는 과정을 '點吐의 文字化 過程'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호구결의 解讀에서 核心이 되는 과정이다.

이 문자화 과정이 끝나면 語順을 調整하는 작업과 점토를 각 漢字에 배당하여 통합하는 작업이 뒤따른다. 이는 字吐 釋讀口訣을 解讀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어순을 조정하는 일과 한자에 점토를 통합하는 일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잘못된 해독이 줄어든다. 이 과정을 일단 '語順 調整 過程'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일이 끝나면 字吐 釋讀口訣을 풀어 읽은 것과 같은 문장이 된다.[8]

풀어 읽은 이 자토 석독구결 문장을 中世國語의 訓民正音 表記로 옮기는 작업이 뒤따른다. 이때에는 각종 訓讀字가 모두 우리말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은 '正音化 過程'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마치면 일단 해독 작업이 끝난다.

이제 구체적인 용례를 들어 가면서 해독해 보기로 한다.

(6)의 예를 해독하면 다음과 같다.

(6)의 '呑'字 한가운데에 온 [·]13은 '-ㄱ[ㄴ/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제의 의미를 갖는 조사이다. '方'字의 [·]22는 연결어미 '-ᄀᆞ[며]', [·]23은 처격조사 '-ㅓ[긔]'에 대응한다. '生'字의 [·]22는 역시 '-ᄀᆞ[며]'

8) 자토 구결의 용례를 제시할 때에는 이 과정을 마친 상태의 문장을 제시할 것이다.

이며 [ㅣ]23은 아마도 처격조사의 일종인 '-ㅋㅓ[의긔'가 아닐까 한다. 이처럼 문자화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漢文 文章의 統合構造이다. 이 統合構造에 따르면 주제 보조사, 처격조사, 연결어미 등이 올 자리가 대체적으로 결정된다.

(10)	(9)	(8)	(7)	(6)
一	其	百 百	萬 百	香 百
切	身	萬 萬	億 萬	普 萬
世	無	億 億	天 億	熏 億
界	量	無 法	諸 天	衆 頻
兜	不	量 門	雜 如	生 婆
率	可	音 音	樂 意	羅
天	稱	歎 讚	出 樂	香
王	數	諸 歎	妙 自	普
悉	現	菩 諸	音 然	散
爲	不	薩 佛	聲 出	十
於	思	功 最	滅 聲	方
佛	議	德 勝	諸 音	百
如	種	無 無	煩 節	萬
是	種	盡 畏	惱 相	億
敷	神		和	淨
座	變		百	光
<9,18-9>	<13,5-6>	<5,19-20>	<5,12-14>	<3,10-12>

그런데 이 예에서 '方'字와 '生'字에 각각 처격조사와 연결어미가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부호구결에서는 句나 節의 마지막 위치에 부호를 몰아서 찍는 原則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를 '句節末 懸吐 原則'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9] 이 예에서 '方'의 [·]23은 처격조사이므로 명사 '十方'의 '方'에 붙는 것이지만, [·]22는 연결어미이므로 앞에 온 동사 '散'字에 붙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生'字의 [·]22도 字吐 釋讀口訣에서는 '熏'字에 붙는다. 조사류 점토는 명사에 붙이고 어미류 점吐는 동사에 붙인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부호구결 (6)을 문자화하여 자토 구결로 바꾸면 다음의 (6a)가 된다. 이를 국어 어순에 맞게 조정하면서 각 한자에 토를 달면 (6b)가 된다. 이를 다시 정음화하면 (6c)가 된다. 다른 곳에서는 '普'에 'ㅣ[이]'가 붙으므로 '普'를 '너비'로 새겨 읽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냥 두었다.

(6) a. 百萬億頻婆羅香ㄱ 普散十方十 ㅁ 百萬億淨光香ㄱ 普熏衆生ㅋ 十 ㅁ <3,10-12>
b. 百萬億頻婆羅香ㄱ 普 十方十 散ㅁ 百萬億淨光香ㄱ 普 衆生ㅋ 十 熏ㅁ
c. 百萬億頻婆羅香온 普 十方긔 비흐며 百萬億淨光香온 普 衆生 이긔 퓌우며

이제 (7)의 解讀으로 넘어간다.

(7)의 '天'字에 찍힌 [·]10은 속격조詞 '-ㄴ[ㅅ]'에 대응한다. '樂'字의 [·]13은 앞에서 지적한 주제 보조사 '-ㄱ[ㄴ/은]'이다. '然'字의 [\]03은

9) 13세기말부터 나오는 송독구결(이른바 순독구결)의 현토는 부호구결의 이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南豊鉉(2000)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듯이 송독구결은 자토 석독구결을 이어 받은 것이 아니라 부호구결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아마도 'ᄒᆞ[히]'에 대응하는 듯하다. 이 'ᄒᆞ[히]'는 'ᄒᆞ-' 동사에 부사파생접사 '-ㅣ[이]'가 통합되어 굳어진 것이다. '聲'字의 [·]11은 대격조사 '-ㄹ[ㄹ/을]'에 해당하는데 이 單點의 위치를 [·]16이라고 할 수도 있다. 대격조사는 이 두 위치 중에서 어느 한 곳에 표기되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聲'字의 [:]03은 'ᄒᆞ-' 동사에 연결어미 '-ㅇㅏ[아]'가 통합된 'ᄒᆞᄋᆞ[ᄒᆞ아]'로 읽는다. '和'字의 [·]22는 연결어미 '-ㅁㅕ[며]'이다. '諸'字의 [·]13은 '모ᄃᆞᆫ'의 '-ㄴ'을 표기한 것이다. '音聲'의 '聲'에 찍힌 單點은 앞에 나온 대격조사 '-ㄹ[ㄹ/을]'이다. '惱'의 單點도 역시 대격조사이며 [:]22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

이상의 설명에 따라 (7)을 口訣字化하면 (7a)가 된다. 語順을 조정하고 吐를 漢字에 붙이면 (7b)가 된다. 이를 다시 正音化하면 (7c)가 된다. '雜樂'의 '樂'에 붙을 주제 보조사와 '出妙音聲'의 '出'에 붙을 점토는 각각 생략되어 있다. 바로 앞의 문장과 통사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처럼 생략하였다.

(7) a. 百萬億天ㄴ 如意樂ㄱ 自然ᄒᆞ 出聲ㄹ ᄋᆞᄋᆞ 音節相和ㅁ 百萬億天 諸ㄱ 雜樂 出妙音聲ㄹ 滅諸ㄱ 煩惱ㄹ [:]22 <5,12-14>

b. 百萬億天ㄴ 如意樂ㄱ 自然ᄒᆞ 聲ㄹ 出ᄋᆞᄋᆞ 音節 相和ㅁ 百萬億天 諸ㄱ 雜樂 妙音聲ㄹ 出 諸ㄱ 煩惱ㄹ 滅[:]22

c. 百萬億天ㅅ 如意樂ᄋᆞᆫ 自然히 聲을 出ᄒᆞ아 音節 相和(ᄒᆞ)며 百萬億天 모ᄃᆞᆫ 雜樂 妙音聲을 出 모ᄃᆞᆫ 煩惱를 滅[:]22

(8)의 예는 다음과 같이 解讀된다.

(8)의 '佛'字에는 [·]15가 달려 있는데 이는 [·]10의 속격조사 '-ㄴ[ㅅ]'과 구별된다. [·]15가 '佛'字에 오는 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텨'의 末音添記字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토 석독구결에서는 '佛'字의 말음첨기자로 '-ᄃᆞ[텨]'와 '-ᄉᆞ[디]'의 두 가지가 쓰였다.[10] 그

런데 이 [·]15는 다음 (9)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정소 '不'에 호응하는 때가 많다. 字吐 석독구결의 부정소에는 '不ᄉᆞ[아니ᄃᆞᆯ], 不ᄉᆞᆺ[아니디], 不ㅅ[아니득]' 등이 있다. [·]15는 또한 '能'字에도 찍힐 때가 있는데 이 예들은 석독구결에서는 '能ㅣᄉᆞᆺ[이디], 能ᄉᆞᆺ[디]'로 현토된다.[11]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하면 [·]15는 口訣字 'ᄉᆞᆺ[디]'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畏'字의 [·]22는 연결어미 '-ᄀᆞᆺ[며]'이고 [-]16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ᄒᆞᄀᆞᆫᄀᆞᆯ[신을]' 또는 '-ᄒᆞᄀᆞᄉᆞᆫᄀᆞᆯ[신ᄃᆞᆯ]'에 대응하는 듯하다. 이 [-]16이 존경법 선어말어미 '-ᄒᆞ[시]-'와 대격조사 '-ᄀᆞᆯ[ㄹ/을]'을 포함하는 형태론적 구성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億'字에 길게 그은 선은 앞에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20을 제거하라는 의미의 校正符號인 듯하다. '薩'字의 [·]19는 구결자 'ᄆᆞ[ㅁㅁ]'에 대응한다(南豊鉉 2000 참조). '盡'字의 [·]19도 이와 같다. '盡'字의 [·]22는 연결어미 '-ᄀᆞᆺ[며]'이고 [·.]02는 '-ㄴᆞ(ᄂᆞᆫ)ᄀᆞ[ㅅ(ᄒᆞ)온]'으로 읽을 수도 있다.[12] [··]16은 '畏'字의

10) 이 'ᄂᆞᆫ'와 'ᄉᆞᆺ'는 각각 '止'字와 '知'字에서 유래된 구결자이다. 그런데 '止'字가 어떻게 [tyə]를 표기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止'字의 上古音 [tyəg]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李丞宰 1993 참조). 日本의 假名 'と[to]'도 '止'字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음가도 역시 '止'의 上古音 [tyəg]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1) 이 자료에는 두 예가 나온다. 두 예에서 모두 '無'字가 앞에 왔다.

莊嚴妙好 無能映奪 <16,8-9>

顯示世間無能爲喩上妙色故 <19,8>

이처럼 '無'가 '能'의 앞에 오면 자토구결에서는 '能에 '-ㅣᄉᆞᆺ' 또는 '-ᄉᆞᆺ'가 통합되는 것이 원칙이다.

一切世間ㅣ 能ㅣᄉᆞᆺ 嬈亂ᄂᆞᆫᄃᆞᆺ 無ᄀᆞ <華跋 23,10-11>

能ㅣᄉᆞᆺ 制伏ᄂᆞᆫᄃᆞᆺ 無ᄒᆞ <華跋 24,14>

能ᄉᆞᆺ 頂ᄃᆞᆫ 至ᄃᆞᆺ 無ㅌᆞᆫ <華嚴 5,8>

一切 天人ㅣ 能ᄉᆞᆺ 頂乙 見ᄃᆞᆺ 無ㅌᆞᆫ <華嚴 8,8>

能ᄉᆞᆺ 摧伏ᄉᆞᄅᆞᆺ、無ᄀᆞ 聞持陀羅尼ㅅㅣ <金光 7,2-3>

能ᄉᆞᆺ 答ᄉᆞᄂᆞᆺᄐᆞ 者、無ᄐᆞㅌᆞㅅᄂᆞㅣ <舊仁 3,2-3>

따라서 '能'字에 찍힌 [·]15는 'ᄉᆞᆺ'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12) 이에 대해서는 (9)의 해독을 참고하기 바란다.

[-]16과 같은 위치에 온 것으로 점토의 종류만 다르다. 여기에서 [-]16은 존경법의 '-ㅎ[시]-'가 포함된 것인데 비하여 [··]16은 이 선어말어미가 없는 것이라는 논의가 가능하다. [-]16에 호응하는 주어는 존칭명사인 '諸佛'이지만 [··]16에 호응하는 주어는 비존칭명사인 '諸菩薩功德'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系列關係를 따지는 것도 해독의 방법으로 아주 유용하다.

이제 앞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點吐를 口訣字로 옮기고 語順을 調整하여 正音化하면 다음과 같다.

(8) a. 百萬億法門音 讚歎諸ㄱ 佛矢 最勝無畏ㅎㄱㅅㄹ? ᄀᆞ 百萬億無量音 歎諸ㄱ 菩薩尸 功德無盡尸 ㅊ(ㅅ)ㄱ ㄱㅅㄹ? ᄀᆞ <5,19-20>

b. 百萬億法門音 諸ㄱ 佛矢 最勝無畏ㅎㄱㅅㄹ? 讚歎ᄀᆞ 百萬億無量音 諸ㄱ 菩薩尸 功德 盡尸 無ㅊ(ㅅ)ㄱ ㄱㅅㄹ? 歎ᄀᆞ

c. 百萬億法門音 모ᄃᆞᆫ 부텨 最勝無畏(이)신ᄃᆞᆯ? 讚歎(ᄒᆞ)며 百萬億無量音 모ᄃᆞᆫ 菩薩ᄄᆞᆯ 功德 다옳 없은ᄃᆞᆯ? 歎(ᄒᆞ)며

'佛'字에 '矢[디]'가 첨기되는 현상은 이 부호구결의 相對的 時期 推定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佛ㄷ[텨], 佛矢[디]' 등으로 말음첨기자를 다는 것은 자토 석독구결 자료 중에서 『華嚴經疏』 권제35와 『華嚴經』 권제14에서만 보인다. 『金光明經』 권제3, 『舊譯仁王經』 上, 『瑜伽師地論』 권제20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前者는 12세기 자료로, 後者는 13세기 자료로 추정되므로[13] 이 자료의 부호구결은 일단 12세기에 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佛ㄷ[텨]'는 『華嚴經疏』 권제35와 『華嚴經』 권제14의 두 자토 자료에 공통되지만 이 '佛矢[디]'는 『華嚴經』 권제14에서만 쓰였다. 따라서 이 자료의 부호구결은 『華嚴經』 권제14에 적힌 자토구결과 계통이 같고 12世紀 中葉 혹은 後半期의 言

13) 이 추정은 南豊鉉(1996)과 南權熙(1997)을 따른 것이다.

語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시기 추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한다.

(8)의 예에서는 점토의 一致 現象이 눈길을 끈다. '佛矣[디]'의 말음첨기자 '矣[디]', 부정소 '不矣[아니디]'의 '矣[디]', '能'字에 독특하게 붙는 '矣[디]' 등은 모두 [·]15로 표기되었다. 또한 '菩薩尸[ᄠᅴ]'에 붙는 특이한 자토인 '-尸[ᄠᅴ]'과, 피부정사에 통합되는 동명사어미 '-尸[ᄠᅴ]'은 [·]19로 일치한다. 이 일치현상을 찾아냈으므로 이 해독은 정확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한편 문장의 계열관계를 이용하여 [-]16은 '-ㅎㄱㅅㄹ[신돌]'로 읽고 [··]16은 '-ㄱㅅㄹ[온돌]'로 읽을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그러나 이 系列關係가 완벽한 해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16과 [··]16을 해독할 때 각각 '-ㅎㄱㅅㄹ[신돌]'과 '-ㄱㅅㄹ[온돌]'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이와 계열이 같은 '-ㅎㄱㄹ[신올]'과 '-ㄱㄹ[온올]'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9)의 예를 해독해 보자.

'不可稱數'의 '數'字에 붙은 점토가 문제가 된다. 자토 석독구결에서 '不可+動詞(+名詞)'의 통사론적 구성을 어떻게 번역하였는지를 먼저 살피기로 한다.

(9′) a. 壞ㅅㅎ 可ᄒᆞᆫㄱ 不矣ㅣㄴ今ㅁ <華跋 35:18,20>
b. 謂ㄴㄱ 所ㄱ 多聞善巧 盡ㅈㅎ 可ᄒᆞᆫㅌ 不矣ㄱㅅㄹ 故ㅣㅁ 善知識乙 親近ㄴ尸 盡ㅈㅎ 可ᄒᆞᆫㅌ 不矣ㄱㅅㄹ 故ㅣㅁ <華跋 35:19,14-15>
c. 彼 諸ㄱ 功德ㄱ 量ㅈㅱㅎ 可ᄒᆞᆫㄱ 不矣ㄱ乙 <華嚴 14:9,2-3>
d. 稱量ㅅㅈㅱㅎ 可ᄒᆞᆫㄱ 不矣ㅁ <華嚴 14:9,5>
e. 伏ㄴㅎ 可ㅅㄱ 不矣ㄱ乙ㅅㅈㄱㅅㄹ <金光 3:7,5-6>
f. 量ㄴㅎ 可ᄒᆞᆫㄱ 不矣ㅣㅌㅌ 衆 有ᄒᆞㄴㅁ <舊仁 上:2,1-2>
g. 思議ㄴㅎ 可ᄒᆞᆫㄱ 不矣ㅁ 度量ㄴㅎ 可ᄒᆞᆫㄱ 不矣ㅣㅁㄱ <舊仁 上:11,23-24>

h. 愛樂ノ ᄒᆞ 可ㅌㅅㄱ 不矣ᄉᆞ <瑜伽 20:27,3-9>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구성에서는 '-ㅁᄒᆞ/ㅈᄒᆞ[옴/검]', '-ㅌㅅㄱ[ㅅ흔]', '不矣[아니디]'의 세 가지가 항상 共通된다. '-ㅁᄒᆞ/ㅈᄒᆞ[옴/검]'에는 [\]09가, '-ㅌㅅㄱ[ㅅ흔]'에는 [·.]02가, '不矣[아니디]'에는 [·]15가 각각 대응한다. [·.]02가 '-ㅌ(ㅅ)ㄱ[ㅅ(ᄒᆞ)온]'에 대응하고 [·]15가 '-矣[디]'에 대응함을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으므로 [\]09에 '-ㅁᄒᆞ/ㅈᄒᆞ[옴/검]'의 '-ㅁ/ㅈ[오/거]'를 배당하게 된다. [-]20은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ㄱㅅᄆ[온ᄃᆞ로]'에 존경법 선어말어미 '-ㅎ[시]-'가 통합된 '-ㅎㄱㅅᄆ[신ᄃᆞ로]'가 아닐까 한다. [·]20이 '-ᄆ[로]'로 읽힌다는 점을 고려하고 (9'b)의 '不矣ㄱㅅᄆ[아니딘ᄃᆞ로]'와 (9'e)의 'ㅅᄋᆞㄱㅅᄆ[ᄒᆞ안ᄃᆞ로]'에 나오는 '-ㄱㅅᄆ[온ᄃᆞ로]'를 감안하여 이렇게 읽는다. 이곳의 주어도 마침 '如來'이고, 존경법 선어말어미가 통합될 때에는 雙點이 아니라 線으로 나타남을 (8)에서 확인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ㅎ[시]-'를 넣는다. 나머지 점토에 대해서는 이미 거론하였으므로 논의를 생략한다.

(9) a. 其身 無量 不可稱數ㅁᄒᆞ ㅌㅅㄱ 矣 ㅎㄱㅅᄆ 現不思議ㅌ 種種ㅌ 神變乙 <13,5-6>
b. 其身 無量 稱數ㅁᄒᆞ 可ㅌㅅㄱ 不矣 ㅎㄱㅅᄆ 不思議ㅌ 種種ㅌ 神變乙 現
c. 其身 無量 稱數(ᄒᆞ)옴 짓ᄒᆞᆫ 아니디(이)신ᄃᆞ로 不思議ㅅ 種種ㅅ 神變을 現

마지막으로 (10)의 예를 해독한다.

'界'字의 [-]10은 처격과 속격조사가 복합된 '-ᄋᆞㅌ[앗]'이 아닐까 한다. '世界'가 후행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10 즉 '-ㅌ[ㅅ]'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는 점토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다.[14] '王'字의

[\]17은 亦復의 의미를 가지는 '-ㄲ[도]'에 대응한다. 실제로 이 자료에는 '亦'字에 바로 [\]17이 온 예가 <22,4>에 나오고 '亦'에 호응하는 명사에 [\]17이 온 예가 여러 번 나온다. '悉'字의 [|]14는 말음첨기의 일종으로서 '-ᄋᆞ[아]'로 읽는다. '佛'字의 [·]15는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 말음첨기자 '-ᄉᆞ[디]'이고 [·]18은 '爲'字의 訓 '삼-'을 표기할 때에 이용되는 'ᄉᆞ[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是'字의 [·]09는 金完鎭(1980)의 指定文字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토 석독구결의 'ᄎᆞ'에[15]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이 [·]09가 '是'字에 붙은 것이 아니라 그 앞의 '如'字에 붙은 것이다. '如'字의 09 위치에 찍힐 단점이 구절말 현토 원칙에 따라 '是'字에 찍히게 된 것이다. '座'字의 [:]03이 'ᄂᆞᆞ[ᄒᆞ아]'에 대응함은 앞에서 이미 논의하였다. 이제 앞에서의 해독절차에 따라 (10)을 해독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 a. 一切世界ᄋᆞᄀᆞ? 兜率天王ㄲ 悉ᄋᆞ 爲於佛ᄉᆞ ᄉᆞ 如是ᄎᆞ 敷座ᄂᆞᆞ ᄋᆞ <9,18-19>

b. 一切世界ᄋᆞᄀᆞ? 兜率天王ㄲ 悉ᄋᆞ [於]佛ᄉᆞ 爲ᄉᆞ 是 如ᄎᆞ 敷座 ᄂᆞᆞ ᄋᆞ

c. 一切世界앗? 兜率天王도 다 부텨 삼 이 다 敷座ᄒᆞ아

(10b)의 '於'는 不讀字이므로 [ ]로 감쌌다. '如ᄎᆞ'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다'로 읽어둔다.

(10)의 '佛'字에 붙은 [·]18은 이 資料의 부호구결의 相對的 時期 推定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자토 자료인 『華嚴經疏』 권제35에서는 'ᄉᆞ[사]'와 '三[삼]'의 두 가지 표기가 나오는데 이 점토 자료에서는 [·]18

14) '-ᄋᆞᄀᆞ'은 釋讀口訣에서는 보이지 않고 誦讀口訣(혹은 順讀口訣)에서만 사용되었다. 따라서 아직 재고의 여지가 있다.

15) 金完鎭(1980)에 따르면 이 指定文字는 訓讀을 指示하는 機能만을 가지고 音價는 없다. 이를 따라 'ᄎᆞ'에 음가를 달지 않았다.

하나로 고정된다. 따라서 [·]18을 '三[삼]'으로 읽어야 하는지 '氵[사]'로 읽어야 하는지 얼른 결정하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18은 '氵[사]'에 대응한다. 『華嚴經疏』 권제35에서는 '爲하다, 말미암다, 삼다' 등의 動詞로 쓰일 때에 '三[삼]'으로 현토하고 限定의 補助詞로 쓰일 때에는 '氵[사]'로 현토하여 동사 범주와 조사 범주를 구별하였다.

(11) a. 一切衆生ヲ 爲三 一切佛ヒ 神力乙 現ヲ氵 敎化調伏ソ氵尓 <華疏 35:20,1-2> : 위하다
b. 但ハ 彼境界乙 因三氵ハ 衆生乙 攝取ソ 欲ス 爲三ヲ 眞實乙 說ソ氵ハ 佛法乙 成熟 令リナヲカ <華疏 35:13,18-19) : 말미암다
c. 百ㄱ 萬尸 阿僧祇七 陀羅尼乙 以氵尓 眷屬 爲三ㄱ乙ソカ <華疏 35:25,13-14) : 삼다

(12) a. 後リ十氵 方七 食ソナカ <華疏 35:9,11>
b. 我ヲ 身ヵヤ 充樂ソ氵 彼カ 亦ソㄱ 充樂ソヲ氵七カ <華疏 35:9,14-15>
c. 佛子氵 此リ 持藏ㄱ 邊尸 無氵 難リ氵 滿ノヲヨ 難リ氵 其底氵十 至ソヲヨ 難リ氵 得氵尓 親近ノヲヨ 能リ矣 制伏ソ氵仝 無ヨ <華疏 35:24,12-14>

(11)은 '三[삼]-'이 동사류 어간으로 쓰인 예이고 (12)는 '-氵[사]'가 보조사로 쓰인 예이다. 이처럼 『華嚴經疏』 권제35에서는 이 두 범주를 엄격히 구별하여 표기하였지만 『華嚴經』 권제14, 『金光明經』 권제3, 『舊譯仁王經』 上, 『瑜伽師地論』 권제20에서는 이 두 범주를 '氵[사]' 하나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氵[사]' 하나로 표기할 때에는 동사류의 '氵[삼]-' 바로 뒤에는 '-ヵ[口]'이나 '-ヲ[오]'를 넣어 조사류 '-氵[사]'와 구별할 때가 많다.

이 자료의 부호구결에서는 이 두 범주를 모두 [·]18 한 가지로 표기

하였다. 동사류의 예로는 바로 이 (10)의 '佛'字에 붙은 [·]18을 들 수 있다.[16] 보조사로 쓰인 것으로는 '甚難得見<8,8>'과 '難可値遇<10,14>'의 '難'字에 찍힌 [·]18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자료의 'ᄉᆞ[사]'의 용법은 12世紀 初葉의 자료인 『華嚴經疏』 권제35보다는 中葉 또는 그 이후의 자료인 『華嚴經』 권제14에 가깝다. 이것은 (8)의 '佛'字에 붙은 [·]15 즉 '-ᄃᆞ[디]'를 논거로 들어 시도하였던 時期推定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5개의 예를 통하여 이 부호구결을 어떻게 해독하는지 설명해 보았다. 이 예들은 상대적으로 해독하기가 쉬운 예에 속한다. 일부의 부호구결은 접근조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 우선 點吐의 種類와 位置가 모호하여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다. 대격조사 '-ㄹ[ㄹ/을]'이 [·]11이라고 하였지만 [·]16일 수도 있다. 연결어미 '-ᄆᆞ[며]'도 [·]22가 원칙이지만 [·]21인 때도 적지 않다. 둘째로 각 점토가 어느 문법 형태에 대응하는지 아직 밝히지 못한 것이 많다. (7)의 예에서 [:]22는 '-ᄆᆞ[며]'와 관계가 있다는 점만 짐작할 뿐 아직 밝히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직 가정조차 세우기 어려운 점토도 적지 않다. 셋째로 각각의 점토가 어느 漢字에 통합된 것인지 불명확한 때도 많다. 특히 여러 개의 부호가 하나의 한자에 기입되어 있을 때에는 해독이 아주 어렵다. 하나의 한자에 많은 수의 점토가 붙기 때문에 그 순서를 어떻게 잡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계속 연구하면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해독의 첫 단계에 불과한 현 상태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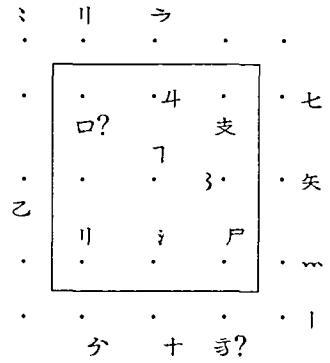
16) 이밖에도 예가 많으나 번거로움을 피하여 예는 생략한다.

5. 點圖 再構

이제 해독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點圖를 그린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에 속할지 모른다. 그러나 點吐의 種類와 位置에 맞춰 하나의 點圖를 그려 보는 것은 차후의 연구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여기서는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單點의 點圖만 제시하기로 한다.

모든 부호의 기본인 單點에 대해서는 특히 點圖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단점은 가장 많이 쓰였고 해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4)에서 제시한 점토 위치에 맞춰 單點의 點圖를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해독된 점토에 대해서는 口訣字를 제시한다.

(13) 周本『華嚴經』卷第22의 單點 點圖



[·]01은 구결자 'ㅅ[여]'에 대응한다. 이는 주로 명사구 병렬의 기능을 담당하는 '-ㅅ[여]'를 표기한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구결자로는 이 '-ㅅ[여]'와 '-ㅗ[여]'가 있으나 여기서는 『華嚴經疏』 권제35와 『華嚴經』 권제14에 쓰인 '-ㅅ[여]'를 택하였다. 이 [·]01은 일부의 예에서는 위쪽의 한자에 찍힌 점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찍힌

다. 따라서 다른 단점의 위치와 크게 차이가 난다. 일부의 예에서는 [·]06의 위치에 온 것도 있다.

[·]02는 구결자 'ㅣ[이]'와 'ㄱ[ㄴ/은]'의 두 가지에 대응하는 듯하다. '不可思議<13,5>'의 '議'字에는 [·]02가 오는데 이는 계사 '-ㅣ[이]-'인 듯하고, '令歡喜<13,10>'의 '喜'字에 온 [·]02는 사동접사 '-ㅣ[이]-'인 것 같다. 이 둘의 문법범주가 서로 다르지만 음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처럼 동일한 곳에 점을 찍은 듯하다. 한편 [·]02가 마치 동명사어미 '-ㄱ[ㄴ/은]'에 대응하는 것 같은 예도 여럿 눈에 띈다. '所成就<12,7>'의 '就'字와 '所種善根<20,14-15>'의 '種'字에 붙은 [·]02가 그 예이다. 특이하게도 이 [·]02는 '所+動詞' 構成에서 주로 발견된다. 아마도 [:]02가 'ᄒᆞㄱ[호]'으로 읽히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雙點 點吐 [:]02 부류로 묶어서 분류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單點 [·]02의 代表字로는 'ㅣ[이]'를 택한다.

[·]03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 둘 것이 있다. '來詣此<8,9>'의 '此'字에는 [·]03과 [·]21이 붙어 있다. [·]21은 '-ᄀᆞᆷ[며]'로 읽을 수 있는데 [·]03은 쉽지 않다. '來詣'는 이동동사이므로 이곳에서의 [·]03은 처격조사 '-ᄋᆞᆨ+[의긔]'의 '-ᄋᆞᆨ[의]'인 듯하다. 이와 인접한 [-]08이 비존칭 유정명사의 속격조사 '-ᄋᆞᆨ[의]'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여 [·]03을 일단 '-ᄋᆞᆨ[의]'로 읽어 둔다.

[·]04와 [·]5는 예가 거의 없어서 논의할 수가 없다.

[·]06은 [·]01과 같은 기능을 할 때가 간혹 있을 뿐 자신의 독자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07은 口訣字 'ㅁ[고]'에 대응하는 듯하나 아직 분명하지 않다. 통합구조로 보면 이 [·]07은 연결어미 '-ㅁ[고]'의 자리에 온 것이 많다. 일부의 예에서는 [·]08 위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08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구결자 'ᅀᅮ[두]'에 대응하는 듯하다. '若有往昔同種善根<16,15-16>'의 '根'字에는 [·]08이 찍혀 있는데 이는

'有'에 호응하는 동사 어간인 듯하다. 마침 [/]08이 'ㅅㅎ[두시]-'로 읽히는 예가 있어서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이 [/]08도 역시 '有'字에 통합되는 점토이다.

[·]09는 口訣字 'ᄎ'에 대응한다. 이 '-ᄎ'는 指定文字의 기능을 가지는 때가 많다. 이 점토가 온 예로는 '能, 善, 如, 故' 등과 '克, 倍, 猶' 등이 있다. 前者는 字吐口訣에서 흔히 보아 온 것이고 後者는 새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當<14,13>'과 '唯<15,1>'字에 찍힌 [·]09는 각각 '반ᄃᆞ기'와 '오직'의 말음첨기에 쓰인 것이라서 문제가 된다. 자토구결에서는 '當'字와 '唯'字에 항상 말음첨기자 '-ㅅ[ㄱ/기]'가 붙고 지정문자가 붙은 예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09가 'ㅅ[ㄱ/기]'에 대응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서는 잠정적으로 [·]09가 지정문자뿐만 아니라 말음첨기자 '-ㅅ[ㄱ/기]'에도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해 둔다.[17]

[·]10은 구결자 'ㄴ[ㅅ]'에 대응한다. 무정명사와 존칭 유정명사의 속격조사 '-ㄴ[ㅅ]'은 [·]10으로 표기된다. [·]10은 또한 '-ㄴ[ㅅ]'을 말음으로 가지는 단어의 말음첨기자로도 자주 쓰인다. 그 예로 '並ㄴ<4,17>, 皆ㄴ<5,7>' 등과 다음의 '-ㄴ[ㅅ]'을 들 수 있다.

(14) a. 隨所出[·]03 ㄴ <6,4-5>
b. 與宮殿乙 ㄴ <8,8>
c. 從天宮乙 ㄴ <9,4>[18]

이 예의 '-ㄴ[ㅅ]' 즉 [·]10은 '隨, 與, 從'字의 말음첨기자이지만 구절말 현토 원칙에 따라 句節末字에 표기된 것이다.

---

17) 'ᄎ'를 지정문자로 보지 않는 관점에서는 'ᄎ'의 위치와 'ㅅ'의 위치가 같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ᄎ'의 음가는 'ㅊ'보다는 'ㅅ'에 가까움을 이 자료가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18) 앞으로는 이 예에서처럼 해독이 확실한 점토는 구결자로 바꾸어 제시하기로 한다.

[·]11은 구결자 'ㄹ[ㄹ/을]'에 대응한다. 대격조사 '-ㄹ[ㄹ/을]'의 표기에 쓰인 것이 분명하다.

[·]13은 口訣字 'ㄱ[ㄴ/은]'에 대응한다. [·]13은 주제 보조사 '-ㄴ[ㄴ/은]', 동명사어미 '-ㄴ[ㄴ/은]'을 표기할 때 사용되고 일부 말음첨기자로도 쓰인다. 말음첨기의 대표적인 예는 '온'으로 읽히는 '百ㄱ<3,18>'과 '즈믄'으로 읽히는 '千ㄱ<11,12>'이다.

[·]14는 구결자 'ㅇ[아]'에 대응하는 듯하다. '以淨信心<9,5>'의 '心'字와 '觀察衆生善根<15,8>'의 '根'字에는 [·]14가 달려 있는데 이는 부사형어미 '-ㅇ[아]'로 읽을 수 있다. 부사형어미 '-ㅇ[아]'는 [ ]14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의 예에서는 [·]14로 표기되었다. 또한 [·]14가 확인법 선어말어미 '-ㅁ/ㅗ/ㅇ/ㅌ[고/거/아/나]-'에 대응할 때도 있다. '處此宮殿<19,15>'의 '殿'字의 여러 점토는 자토구결의 'ㅅㅁㅎ[ᄒᆞ곡시셔]'를 포함하고 있는데 [·]14가 이 '-ㅁ[고]-'에 대응한다.

[·]15는 앞에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구결자 'ㄷ[디]'에 대응한다. '佛'字와 부정소 '不' 그리고 '能'字에 붙는다.

[·]16은 거의 대부분 [·]11과 기능이 같아서 구별되지 않는다. 즉 [·]16의 예들은 대부분 대격조사 '-ㄹ[ㄹ/을]'에 대응한다.

[·]17은 주로 사동사 'ᄉᆞㅣ[ᄒᆞ이]-'와 사동접사 '-ㅣ[이]-'에 대응한다. 위의 점도에서는 사동접사를 대표로 삼아 'ㅣ[이]'로 적었다. 다음 예에서 [·]17이 '令'에 호응함을 알 수 있다.

(15) a. 百萬億不住三界音ㄱ 令其聞[/·]05 者 深入法性ㅓ ᄉᆞㅣ ㅎ <6, 2-3>

b. 百萬億不住三界音ㄱ 其聞[/·]05 [者] 法性ㅓ 深入 [令]ᄉᆞㅣ ㅎ

c. 百萬億不住三界音은 其聞[/·]05 法性긔 深入ᄒᆞ이며(또는 '기피 들이며')

[·]18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구결자 '氵[사]'에 대응한다. 동사류에 통합되는 [·]18은 동사 어간 '氵[삼]-'으로 읽고 보조사로 쓰인 [·]18은 한정의 의미를 갖는 '-氵[사]'로 읽는다.

[·]19는 구결자 '尸[ㅁ]'에 대응한다. [·]19는 동명사어미 '-尸[ㅁ]'을 표기할 때에 많이 쓰였다. 자토구결에서 특이하게 쓰인 '-尸[ㅁ]'이 있는데 이들의 표기에도 [·]19가 이용되었다. 여기에서는 '一切尸<3,14>,<5,12>', '菩薩尸<5,20>,<6,12>', '如來尸<6,6>,<8,12>' 등의 예만 들어 둔다. 말음첨기의 표기에도 이용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十<9,24>'와 '萬<3,18>'字에 붙은 [·]19 즉 '-尸[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19는 '十'의 고유어 '열'과 '萬'의 고유어 '골'(李丞宰 2000나 참조)의 'ㄹ'에 대응한다. 자토구결 자료에서는 이 '十尸[열]'과 '萬尸[골]'이 『華嚴經疏』 권제35에만 나온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 자료의 부호구결은 적어도 12世紀 初葉까지 거슬러 올라간다(南豊鉉 2000 참조).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15와 [·]18의 예는 『華嚴經』 권제14에 가까운 것이었으므로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감안하여 이 資料의 符號口訣은 12世紀 初·中葉의 言語資料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20은 구결자 'ㅭ[로]'에 대응한다. 이것은 구격조사 '-ㅭ[로]'의 표기에 가장 많이 쓰였다. 그런데 이 '-ㅭ[로]'는 도구의 의미나 원인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 많이 사용되었다.

[·]22는 구결자 '亇[며]'에 대응한다. 이는 연결어미 '-亇[며]'의 표기에 쓰였다.

[·]23은 구결자 '十[긔]'에 대응한다. 이를 '-氵十[아긔]'로 읽기도 하나 '-十[긔]'일 가능성이 더 많다. 따라서 일단 점도에서는 '十[긔]'를 대표로 삼았다.

[·]24는 구결자 'ᄌᆞ[져]'에 대응하는 듯하나 확실하지 않다.

[·]25는 구결자 'ㅣ[다]'에 대응하는 듯하다. '如對目前<10,13>'의 '如'字에는 [·]25가 붙어 있는데 이는 '如'의 訓 'ㅣ[다]'에 해당한다. 따

라서 [·]25를 'ㅣ[다]'로 읽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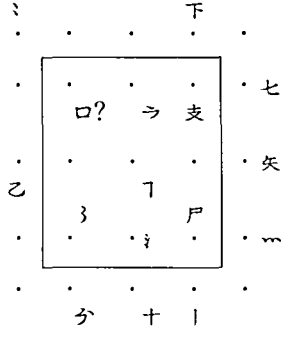
25개의 위치 중에서 [·]04, [·]05, [·]12의 單點은 예가 많지 않아서 자세히 논의할 수가 없다. 자료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체계적인 빈칸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 周本『華嚴經』권제6, 권제31, 권제34, 권제36, 권제57까지 모두 검토한 다음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6. 點圖 比較

앞에 제시한 單點 點圖를 晉本『華嚴經』卷第20의 點圖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 晉本『華嚴經』은 역시 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이다. 이 晉本의 刊行年代는 9~10世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듯하나 여기에 기입된 부호구결은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晉本『華嚴經』권제20의 點圖를 제시하면 (16)과 같다. 이것과 周本 點圖 (13)을 비교해 보면 두 점도가 아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16) 晉本『華嚴經』卷第20의 單點 點圖



쓰이는 빈도가 높은 單點이 모두 일치한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예컨대 'ㄱ[ㄴ/은]', 'ㄹ[ㄹ/을]', 'ㅅ[ㅅ]', 'ㅓ[ㄱ]', 'ㅚ[로]', 'ㅊ', 'ㅠ[ㅠ]', 'ㅁ[고]', 'ㅕ[며]' 등이 그러하다. 'ㅖ[여]'의 표기에 [·]01이 쓰이기도 하고 [·]06이 쓰이기도 하는 현상도 일치한다. 'ㄹ[ㄹ/을]'의 표기에 [·]11과 [·]16이, 'ㅕ[며]'의 표기에 [·]22와 [·]21이 쓰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非辨別的인 位置가 공통되는 것이다. 'ㅣ[다]'가 周本에서는 [·]25인데 비하여 晉本에서는 [·]24로 나타난 것도 이 비변별적 위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07의 'ㅁ[고]'는 의심스러운데 그 정도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ㅢ[의]'의 위치가 周本에서는 [·]03인데 비하여 晉本에서는 [·]08로 추정된 것도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周本에서도 같은 위치인 [-]08이 속격조사 '-ㅢ[의]'를 표기한 예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晉本의 [·]04는 'ㅏ[하]'의 표기인데 이것이 周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차이도 그리 큰 것이 아니다. 周本에서는 命名文이 나오지 않아 'ㅏ[하]'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추측한다.

차이가 있다면 [·]17의 'ㅣ[이]'와 'ㅐ[애]'일 것이다. 周本에서는 [·]17이 사동사 혹은 사동접사 '-ㅣ[이]-'의 점토인데 비하여 晉本에서는 부사형어미 '-ㅐ[아]'의 점토이다. 진본에서는 사동사 혹은 사동접사는 [\]15로 표기된다.

그런데 周本『華嚴經』권제22의 점도는『瑜伽師地論』권제5, 권제8의 점도와 차이가 크다(南豊鉉 2000). 따라서 周本과 晉本『華嚴經』은 서로 유사하나,『瑜伽師地論』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정리할 수 있다.『瑜伽師地論』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法相宗의 經典이므로 華嚴宗의 經典인『華嚴經』과 차이가 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宗派에 따라 點圖가 달라지는 것은 日本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周本『華嚴經』권제22와 晉本『華嚴經』권제20의 두 點圖를 통하여 華嚴宗派의 點圖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周本

과 晉本의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 共通되는 點吐를 중심으로 하여 華嚴宗의 點圖를 再構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點圖를 이 글에서는 'ㄱㆍㄷㅣ[며엿다]'形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는 漢字의 圈標 表記 順序와 마찬가지로 左下의 'ㄱ[며]', 左上의 'ㆍ[여]', 右上의 'ㄷ[ㅅ]', 右下의 'ㅣ[다]'를 차례로 연결한 것이다. 'ㄱㆍㄷㅣ[며엿다]'形를 줄여서 '멋다[멋다]'形으로 칭하는 것이 편리할 듯하다.

7. 結論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간단히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符號는 文字化가 可能한 點吐와 不可能한 符標로 이루어진다. 符號口訣은 釋讀口訣의 一種으로서 字吐口訣과 對稱되는 槪念이다. 墨書의 字吐와 角筆의 點吐는 둘 다 吐의 範疇에 든다. 文字化가 不可能한 符標는 文字로 表記되는 吐와 對立된다.

符號의 種類는 일단 點吐와 符標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符標 중에서 上向長線은 逆讀의 기능을 담당한 듯하고, 補助線은 境界線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많았다. 點吐는 點과 線 그리고 이들의 複合形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點吐로 쓰인 線은 거의 대부분 短線이다. 符號의 位置는 25개인 것으로 보았다. 點吐를 표기하는 방법으로는 [·]13, [-]16과 같은 방법을 택하였다. 點吐의 種類를 [ ]으로 감싸고 點吐의 位置를 數字로 併記한 것이다.

解讀 方法은 例를 들어 論議하였다. 解讀의 出發點은 漢文의 統辭構造에서 찾을 수 있었다. 漢字 相互間의 統合關係를 이용하여 點吐가 統合될 漢字를 결정하고 系列關係를 따져서 適當한 助詞나 語尾를 選擇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末音添記字가 解讀의 실마리를 제공한 때가 적지 않았음을 강조해 둔다. 그러나 해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字吐口訣을 이용하여 點吐의 機能을 解明하는 방법이다. 字吐에 用例가 나오는 句節은 비교적 解讀이 容易하지만 그렇지 않은 句節은 쉽지 않다. 해독 과정은 文字化 過程(즉 字吐化 過程), 語順調整 過程, 正音化 過程의 셋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文字化 過程이 符號口訣 解讀의 核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몇 예의 해독을 통하여 周本『華嚴經』권제22의 符號口訣은 12世紀 初·中葉의 資料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資料의 點吐는『華嚴經疏』권제35의 字吐와 가까운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華嚴經』권제14의 字吐와 가까운 것도 있다. 따라서 이 자료의 부호구결은『華嚴經疏』권제35와『華嚴經』권제14의 中間 時期에 해당하는 言語資料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周本『華嚴經』卷第22의 單點 點圖를 그려 보았다. [·]01은 'ㅅ[여]', [·]02는 'ㅐ[이]', [·]03은 'ㅢ[의]', [·]07은 'ㅁ[고]', [·]08은 'ㅺ[두]', [·]09는 'ㅈ' 또는 '-ㅅ[ㄱ/기]', [·]10은 'ㄷ[ㅅ]', [·]11은 'ㄹ[ㄹ/을]', [·]13은 'ㄱ[ㄴ/은]', [·]14는 'ㅇ[아]', [·]15는 'ㅊ[디]', [·]17은 'ㅿㅐ[ᄒᆞ이]' 또는 'ㅐ[이]', [·]18은 'ㅅ[사]', [·]19는 'ㅍ[파]', [·]20은 'ㅭ[로]', [·]22는 'ㅿ[며]', [·]23은 'ㅓ[지]', [·]24는 'ㅈ[져]'(?), [·]25는 'ㅣ[다]'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晉本『華嚴經』卷第20의 單點 點圖와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일부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는 주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華嚴宗派의 點圖 名稱을 'ㅿㅅㄷㅣ[며엿다]'形, 줄여서 '멋다[멷다]'形으로 불러 보았다.

참고문헌

金完鎭(1980),『鄕歌解讀法 硏究』, 서울大出版部.
南權熙(1997),「借字表記 資料의 書誌」,『새국어생활』7-4, 國立國語硏究院.
南豊鉉(1996),「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n]'」,『國語學』28, 國語

學會.
南豊鉉(2000),「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書誌學報』24, 韓國書誌學會.
李基文(1971),『訓蒙字會硏究』, 서울大出版部.
李丞宰(1993),「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國語學』23, 國語學會.
_____(2000가),「새로 發見된 角筆 符號口訣과 그 意義」,『새국어생활』10-3, 國立國語硏究院.
_____(2000나),「釋讀口訣의 數詞에 대하여」,『21世紀 國語學의 課題』, 月印.
장경준(2001),「釋讀口訣의 '故'자의 현토 경향에 대한 고찰(1)」,『口訣硏究』7, 口訣學會.
小林芳規(1989/96),『角筆のみちびく世界』, 東京: 中央公論社.
ISHIZUKA Harumichi(1997),「Xundu-reading of Chinese texts among the peoples of Asia」,『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서울: 太學社.

On the Symbol-Kugyol(符號口訣) noted on a text of *Huayanjing*(華嚴經)

Lee, Seung-Jae

In this paper I aim to discuss Symbol-Kugyol(符號口訣) noted by Gakpil(角筆) on the text of *Huayanjing*(華嚴經) which was published in the 11th or 12th century. First of all, I give my own definition of the word 'Symbol', because a scholar suggested recently a somewhat different idea to which I do not agree. One group of Symbols, named Jeomto(點吐), containing their own grammatical function and phonological form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group, named Bupyo(符標), indicating only such functions as marking connection of words, correction of error, punctuation, and so on. Secondly, I investigate how many kinds of Symbol were noted on the text, and which positions played linguistically significant role. Thirdly, I discuss how to decipher Jeomto. At the first stage of decipherment, a Jeomto is decoded to a linguistic form in considering syntactic structure and paradigmatic relation of original Chinese sentence. Taking '⊡' and '◦□' as examples of Jeomto, a dot marked on the center and the left side of Chinese character correspond to the topic marker '-eun/neun(은/는)' and the accusative case marker '-eur/reur(을/를)' in modern Korean, respectively. At the second, attaching the decoded one to Chinese character, we should change Chinese word order of the sentence for Korean word order simultaneously. Then, the text will be read easily as if it is a late-middle

Korean version. Finally I suggest a figure, named as Jeomdo(點圖) of a dot, showing where a dot plays a oppositional role or how to read it, and compare the figure with that of another version of *Huayanjing* published at the same period.